

文  
獻  
部

部	史 部
類	詔令・奏疏類
番号	乙-1955
冊数	1 - 1

1219  
4c  
1

史 部

部	史 部
類	詔令・奏疏類
番號	乙-1955
冊數	1 - 1
備考	

字恤典則

卷之三

傳曰：「豈不勞乎？」之顧領顛連者孰與？高政之在心，拯濟而其事，寡無告寡可矜者，其矜也。

彼壯者為人所保，水負薪尚可以資生童稚異於是掩耳餬口莫之自力啼呼乞活無處可依至於道傍遺棄之類未知其間有甚事故要之無父母致此境設令有父母存焉飢寒切膚度不能兩全割情斷愛置之街巷以冀人之哀而救之也倘有仁人即地收養誠棄耳不然而蹉過時日便無罪就死噫天地生物之意豈亶

字恤典則

一

然哉國家之設置活人惠民兩署即醫藥濟死之意也民之有疾病猶且設官而救之况此童稚之或行乞或遺棄者比之疾病不啻緊急廣濟院育嬰社之良法義制古今異宜有難一朝遍行而京師八方之所表準略倣遺規先從此始以為就次取則之地者實合仁政之權輿爭於日前偶然思及議于大臣僉謀既同今何必持疑其令攸司爛漫講究諸凡合行事宜著成節目仍即頒示中外俾各永久遵行若其豐歉之異例年月之定制不可無細加裁量區別差

等而有親戚有主家者搜訪寄托之道無子女無僮僕者收養許給之法亦須務從纖悉俾有終始之惠

### 事目

天地之大德曰生聖人則之以行仁政中庸育萬之功姬文先四之化亦不過一仁字推廣而已惟我

聖上當六道議賑之餘軫一民失所之慮蠲恤之惠既遍於寰宇惻隱之念至及於嬰孩荒歲行乞之兒道傍遺棄之類以粥以乳在

### 二字恤典則事目

二

收育而特降傳教頒示中外藹然善保之意演繹於辭表以恩則無處不周以德則無物不育導迎和氣迓續休命之方實在於斯矣應行節目依聖教爛加講確開錄于後為白在果內以該廳該部外而各道各邑為今日任事之臣者孰不欽仰贊歎殫誠對揚而仁聞所及風草必偃雖愚夫愚婦亦當感激而興起不待官飭自願收養者將見其踵相接也從今以往荒歲無啼飢之兒道傍無失哺之類惠澤洋洋功化肝靈與天地同其大矣曷不休哉

弁以十行絲綸系以九條節目真諺翻膳布

于五部八道以為永久遵行之地為白齊

一荒歲行乞之兒以十歲為限道傍遺棄之兒

以三歲為限五部隨聞見牒報賑恤廳自賑恤廳留養為白乎矣行乞之兒荒年餒限麥秋留養遺棄之兒勿拘豐歉依節日施行為白齊一行乞兒必以無父母親戚無主無依之類為準為白乎矣該部吏隸該里任掌輩或有符同瞞告之事是白去等重治勿施雖在留養之後是白良置父母親戚主家中如有來推者則取

字恤典則事目

三

招於切隣詳查其來歷明白無疑然後自該部籍記月日捧傍音出給為白乎亦若其親戚及主家之形勢稍可接濟而全不顧恤故令行乞者另加搜訪嚴飭還付俾無更致流散之弊為

白齊

一行乞兒留養段賑廳外倉門外空閑處別設土宇以為留接之所給糧段叅照賑廳式例自十歲至七歲一日每口米七合醬二合藿二立式自六歲至四歲一日每口米五合醬一合藿一立式計給使該廳庫直主管辦饋為白齊

一遺棄兒段當自該部隨所見報來而窮巷深僻之處郊外稍遠之所則部官雖未目覩有所及聞是白去等審驗收取移送賑廳為白乎矣大抵襁褓之兒遺棄道傍除非別有事故即是萬不獲已割情之父母誠甚不忍無知之幼稚亦獨何辜其在惻隱之情宜急濟活之方不惟部官採問而已雖是過去之人如有目見之事即付里任先送賑廳仍為通于該部為白齊一遺棄兒留養段流丐女人中擇其有乳者每一人兩兒式分授為白乎矣乳女一日每口米立式上下為白齊

二字恤典則事用

四

一升四合醬三合藿三立式計給為白乎亦雖非流丐如有自願取養之人而貧不自食難於飼乳者只授一兒每一日米一升醬二合藿二

立式上下為白齊  
一母論行乞兒遺棄兒如有自願收養者一依續典事目自賑廳成給立案而願為子女者願為奴婢者各從其所願施行為白乎矣不計良入公私賤並許收養者執持為白遣未滿六十日有始無終者勿施其父母族屬中三朔前推尋者倍償收養穀物許令還推救活後厭避者

以叛主論威勢還奪者以枉法論為白齊  
一行乞及遺棄兒饋粥飼乳之節若不自官檢  
飭則易致有名無實每月終該廳郎官審其肥  
瘠察其動慢不善饋粥之庫直不善飼乳之女  
人這這警責為白乎矣該部官員或忽收報該  
廳郎官不勤留養有所現發於廉探之時是白  
去等自賑廳草記論罪為白齊

一行乞及遺棄兒中無衣之類依賑廳前例量  
宜造給乳女段置或有無衣者是白去等隨所  
見一體造給疾病之類自該廳分付惠民署使

字恤典則事用

五

之看審救療為白齊

一外方段各其面里任隨所見報于本官自本  
官審察其虛實行乞兒只設賑邑訖留養遺棄  
兒毋論設賑與否通同舉行為白乎於饋粥飼  
乳之節留接收養之法一依京節目施行穀物  
段以常賑穀會減鹽釐段自本官擔當而每月  
終口數穀數報于監營自監營逐邑條列後錄  
狀聞都成冊段上送賑恤廳以為憑考之地  
為白乎亦各邑守令如或違越事目不善舉行  
則依京廳例該道臣狀聞論罪繡衣廉探時

一體摘叢從重勘處為白齊

一未盡條件追于磨鍊為白齊

字恤典則事用

六

癸卯活印  
中外藏板

## 조흘頓측

전교<sup>呼</sup>샤<sup>マ</sup>르<sup>ヤ</sup> 뒤<sup>ウ</sup>홍<sup>ム</sup>에 내<sup>비</sup>성<sup>シ</sup>의 함<sup>함</sup><sub>풀</sub>

거<sup>이</sup> 동<sup>라</sup> 허<sup>고</sup> 전<sup>련</sup> 뉴 리 헤 야 업 터 지<sup>노</sup> 거<sup>동</sup> 이<sup>라</sup> 허<sup>노</sup> 쟈<sup>니</sup> 님<sup>금</sup>

의<sup>정</sup> 소<sup>에</sup> 건<sup>지</sup> 고<sup>구</sup> 홀<sup>배</sup> 아니<sup>리</sup> 오<sup>만</sup>은 그<sup>중</sup>  
마<sup>장</sup> 고<sup>홀</sup> 디<sup>업</sup> 고<sup>고</sup> 장<sup>블</sup> 양<sup>호</sup> 재<sup>아</sup> 희<sup>들</sup> 파<sup>어</sup>  
린<sup>거</sup> 시<sup>니</sup> 쳐<sup>조</sup> 란<sup>거</sup> 스<sup>느</sup> 눔의<sup>의</sup> 고<sup>공</sup> 이<sup>되</sup> 야<sup>물</sup> 도  
기<sup>르</sup> 며<sup>나</sup> 모<sup>도</sup> 쳐<sup>오</sup> 히<sup>려</sup> 가<sup>히</sup> 조<sup>로</sup> 허<sup>야</sup> 살<sup>녀</sup>  
니<sup>와</sup> 아<sup>희</sup> 들어<sup>린</sup> 거<sup>스</sup> 이 와<sup>달</sup> 나<sup>몸</sup> 을<sup>기</sup> 리<sup>우</sup>  
고<sup>입</sup> 을<sup>먹</sup> 을<sup>도</sup> 리<sup>스</sup> 스로<sup>힘</sup> 쓸<sup>길</sup> 이<sup>업</sup> 서<sup>울</sup> 고  
브<sup>르</sup> 지<sup>져</sup> 살<sup>기</sup> 를<sup>비</sup> 러<sup>도</sup> 가<sup>히</sup> 의<sup>지</sup> 홀<sup>끗</sup> 이<sup>업</sup>

## 조흘頓측

느니<sup>길</sup> չ<sup>에</sup> 내<sup>여</sup> 보<sup>린</sup> 류<sup>에</sup> 니<sup>르</sup> 러<sup>는</sup> 그<sup>소</sup> 이  
에<sup>모</sup> 슴<sup>연</sup> 피<sup>잇</sup> 는 줄<sup>은</sup> 아<sup>지</sup> 못<sup>흐</sup> 거<sup>니</sup> 와<sup>대</sup> 강<sup>강</sup>  
부<sup>뫼</sup> 업<sup>서</sup> 이<sup>러</sup> 흐<sup>디</sup> 경<sup>에</sup> 니<sup>르</sup> 렷<sup>고</sup> 비<sup>록</sup> 부<sup>뫼</sup>  
이<sup>실</sup> 지<sup>자</sup> 도<sup>주</sup> 리<sup>고</sup> 침<sup>기</sup> 몸<sup>에</sup> 고<sup>절</sup> 허<sup>야</sup> 둘이<sup>이</sup>  
조식파 제몸과 둘  
이<sup>란</sup> 말<sup>슴</sup> 이<sup>라</sup> 다<sup>사</sup> 라<sup>나</sup> 지<sup>못</sup> 홀<sup>줄</sup> 을<sup>혜</sup> 아<sup>야</sup>  
리<sup>고</sup> 인<sup>정</sup> 을<sup>베</sup> 히<sup>고</sup> 소<sup>랑</sup> 헤<sup>는</sup> 모<sup>음</sup> 을<sup>呻</sup> 허<sup>거</sup>  
리<sup>에</sup> 내<sup>여</sup> 보<sup>려</sup> 뻐<sup>보</sup> 는 사<sup>룸</sup> 이<sup>불</sup> 양<sup>이</sup> 녁<sup>겨</sup> 사<sup>로</sup>  
로<sup>기</sup> 를<sup>보</sup> 라<sup>미</sup> 니<sup>만</sup> 일<sup>착</sup> 흐<sup>사</sup> 룸<sup>이</sup> 이<sup>션</sup> 곳<sup>에</sup>  
갓<sup>다</sup> 가<sup>기</sup> 르<sup>면</sup> 다<sup>희</sup> 헹<sup>거</sup> 니<sup>와</sup> 그<sup>러</sup> 치<sup>못</sup> 헤<sup>야</sup>  
여<sup>러</sup> 뻐<sup>가</sup> 지<sup>나</sup> 면<sup>은</sup> 득<sup>죄</sup> 업<sup>시</sup> 죽<sup>으</sup> 리<sup>니</sup> 슬<sup>프</sup>

다하늘과 싸희만물을내는뜻이었지 흐갓이  
러호리오활인혜민두마을을두기논곳의약  
으로죽는거슬구호려호뜻이라 빅성이 병이  
셔도오히려관원을두어구호려호거든호를  
며이아희들파어린것들이후도니며빌고혹  
네여부리논거시병든것보다가더욱간급호  
니광제원파육영샤두집일 흠이니례 적 뉴 걸  
을구호교아희를기르던  
마을의아름다온법데논고금이달나일조에  
이라

투루힝<sup>弓</sup>기어려오되울은팔방의법이되  
는곳이니약간햇법을의방<sup>方</sup>야몬져이라로

### 조회별족록

조차비로서버점<sup>才</sup>로법밖제<sup>制</sup>거가실노어  
진정<sup>正</sup>수의시작이될지라내거번우연히상각  
하고대신들의개의논<sup>論</sup>니모든의논이다고  
트니이제엇지지란<sup>論</sup>야의심<sup>心</sup>리오유<sup>由</sup>수  
든 관 원  
들 이 라로호여금난만이의논<sup>論</sup>고궁구호야  
맛<sup>맛</sup>당<sup>당</sup>이<sup>이</sup>힝<sup>弓</sup>염즉<sup>即</sup>호일을절목<sup>目</sup>을일위<sup>印</sup>호야  
즉시<sup>時</sup>증<sup>證</sup>외<sup>外</sup>서 울 파식 꿀 이예 두루 뵈야<sup>야</sup>여금  
각각길이준<sup>準</sup>힝<sup>弓</sup>게<sup>賜</sup>되<sup>되</sup>풍<sup>風</sup>흉<sup>匈</sup>의법례다르기  
와년월의법례를정<sup>正</sup>기<sup>基</sup>를가히조<sup>조</sup>shire<sup>希</sup>혜아  
려구별<sup>別</sup>호고차등<sup>等</sup>지아니치못홀거시니결

베잇고 남자잇는쟈란두루자자맛질도리와  
조식업고종업손쟈란거두어길너허흐야줄  
법을도흐즈셰흐고극진흐기름힘버흐여금  
종시히은혜잇게흐라

## 소목

연디의큰덕이 몰온만물을내옵시미라성인  
이법밧즈와뼈어진정스를히흐옵시느니중  
용<sub>이착일</sub><sub>홈</sub>의만물기르는공파희문<sub>쥬문왕</sub><sub>란말이라</sub>  
의네빅성을<sub>흘아비와흘어미와부모업</sub><sub>손늘근이라</sub>몬  
져흐오시던교해도호호어절인張貼를미뤄여

## 조흘연축소목

三

널나기에지나지아닐색름이라오직우리  
성상이여소도진흘흐옵는째를당흐오셔흐  
빅성이나곳을일흘됨녀를싱각흐오셔고흘  
흐옵시는은혜임의온나라헤두루흐오시고  
불상흐야흐오시는 싱각이어린아희들의  
게杪지밋즈오셔흉년에두루비는아희와길  
서에내여보린류를뼈죽먹이고뼈졌먹여다  
거두어기르라흐오셔특별이 전교를느리  
오셔중의예두루뵈게흐오시니애연히조식  
을보전흐오시는뜻이 말솜밧고드러나

오시니

은혜밋접지아닌되업고

턱은만

물이길니지아닐거시업소오니화효고운을  
인도호야마자오고아름다온면명을맛조와  
닛스올도리진실노이에잇습는지라응당항  
호울절목은 쟁교를밧조와조셰히강학호  
야이아래버려쓰노니안흐로히청파하부와  
밧그로각도와각읍에오늘날일맛조온신하  
들이뉘공경호옵고울어러찬탄호와정성을  
다호야되답지아니호리오어진소문이밋접  
느바에부람에풀쳐로반드시누을거시니

금

조홍록

四

의교회 흥호옵기풀우비록우미호지아비와  
혜부람又습단말이라비록우미호지아비와  
우미호지어미라도호맛당히감격호야니  
러나판가신칙을기드리지아니호고조원호  
야거두어기를재장초그서로니음드라실거  
시니이제로조차벼옴으로느흥년에도주리  
물우는아희업교길선에젖을일흔어린거시  
업슬이니 은퇴이념씨옵고공화힐향서로  
호옵는단호야텐디로더브러그크옵기호가  
말이라 지옵시니엇지아름답지아니호리오 열줄  
료음을우헤쓰옵고아래로아홉가지절목을

진서와언문으로 빼 옵고 번역 ㅎ 야 오부와 팔  
도에 두루 배프와 배기리 준 흥 ㅎ 옵게 ㅎ 올려  
일은 흥 ㅌ에 드니며 비는 아희는 열설을 흥 ㅎ  
고 길 ㅅ에 브린 아희는 세설을 흐 ㅎ 야 다 么부  
판이 듯고 보는대로 진 흘 청에 보 ㅎ 면 진 흘 청  
이 거두 어 기르 되 비는 아희는 흥 ㅌ 뿐 보리나  
기 ㅅ지 기르고 브린 아희는 풍 흥에 거리세지  
말고 절 목대로 시 흥 ㅎ 을 져

일은 퉤니며 비는 아희는 부모와 결네 업고 주  
인도 업서의 지 업 슬류를 흐 ㅎ 야 ㅎ 되 당부하

조 흘 대 족 소 목

五

인파당니 임장들이 후부 동 ㅎ 야 소녀 ㅎ 노  
일이 이 시면 퉤 히다 ㅅ려 그는 물시 ㅎ 꼬비록  
거두 어 기른 휘라도 부모와 결네와 주인 중에  
만일 와 셔 ㅈ ㅈ 리 이 시면 절 난의 게 죠 ㅅ 바다  
그 니력 을 ㅈ 셰 히 사 학 ㅎ 야 명 빅 ㅎ 야 의심이  
업스 ㅌ 후에 당부로 셔 월일을 괴 록 ㅎ 고 다 짐 밟  
고 냐여 주되 만일 결네와 주인의 형세 적이 가  
히 브 칠 만 ㅎ 고 도전 혀 돌보지 아니 ㅎ 야 짐 ㅈ  
나가 빌게 호 ㅈ 는 각별이 두루 ㅈ 자 엄히 신 칙  
ㅎ 야 도로 맛 져 ㅎ 여금 다시 뉴산 ㅎ 는 폐 가업

## 게 흐을 쟘

일은 두루 비는 아희 거두어 먹이 기는 진 흘 청  
외 창문 밖 봄 끗에 별 노움을 무더 삐 머물 끗을  
흐고 낭식 주기 눈 진 흘 청식례 대로 열 설 노셔  
날 곱설 섭지 눈마 달 흐 게 쓸 칠 흄장 두  
흡 머 육 두 담식 주고 여 쇠 설 노셔 네 설 섭지 눈  
날 마 달 흐 게 쓸 닷 곱장 흄 흄 머 육 흄 담식  
혜여 주어 진 흘 청 고직 이로 흐여 금 주장 흄 야  
먹이 게 흐을 쟘

일은 내여 브린 아희 눈 당부로 셔 보는 대로 보  
  
**조 흘 던 측 소 목**  
六

흐 되 궁 벽 흐고 기픈 끗 과 교 외 조금 먼 끗은 부  
판이 비록 눈으로 보지 못 흐여 시나 소문이잇  
거든 즈 셰 히 슬펴 거두어 다가 진 흘 청으로 보  
내 되 대 져 기세 쏘인 아희 길 섭에 브리 눈 거시  
별 노연 피잇지 아니면 끗이 만만 브득이 흐일  
이 라은 정을 썬 눈부 모 눈 진 실 노심 히 불인 흐  
거니 와 알으 미업 눈 어린 거시 야 쇠 민 슴 죄리  
오 그 층은 흐드 음에 맛당이 구 활 흘 도리를 둡  
히 흐리니 흐갓 부판 만방 문 흘 뿐이 아니라 비  
록 지나 가는 사 름이라 도 만 일 눈으로 보는 일

이잇거드즉시임장의게맛져몬져잔홀청으로보내고인호야당부에통호올져.

일은브린아희를거두어기르기노비는퇴인중에젓잇는이를흔희여호녀인의게두아희식느화젓먹이노녀인은호로暄호되너홉파장서홉파머육세납식혜여주꼬비록비는사름이아니라도조원호야갓다가기르랴호는사룸이이시되간난호야스스로먹을도리업서젓먹이기어려워호는재잇거든다만호아희를맛지고날마다뛸호되와장두홉파머육

### 조홀면축소목

七

두남식「차하호」울져

일은비는아희와브린아희를의논치말꼬조원호야기르랴호는이잇거든속대면소목대로진홀청으로션납안을성급호고제조식되기를원호거나종되기를원호거든각각그소원을조차시힐호오되빅형일지공스천일지혜지말고다기르는자의호랴호는대로호되뉴십일이太지못호야처음은기르다가나종은아니거든물시호고그부모결네종에석돌전에초거든기를감술비히감흔후에도로太

자 가 기 를 허 ھ 고 구 ھ 야 삼 온 후에 제 가 슬 히  
여 피 ھ 는 쟘 노 종 이 상 텐 비 반 효 를 노 다 수 리  
고 구 활 후 위 세로 도로 아 스 랴 ھ 는 쟘 는 법 을  
굽 히 는 률 노 의 논 ھ 올 져

일 은 비 는 아 희 와 브 린 아 희 죽 먹 이 고 젓 먹 이  
노 절 치 만 일 판 가로 셔 검 칙 지 아 니 ھ 면 을 홍  
만 잇 고 실 이 업 기 수 오 니 미 삭 금 음 에 진 훌 청  
낭 판 이 그 솔 씨 고 여 위 기 를 보 고 그 브 즈 런 ھ  
고 게 으 드 기 를 솔 펴 잘 못 ھ 는 고 직 이 와 잘 못  
흐 는 젖 어 미 노 ㅋ ㅋ 경 칙 ھ 오 되 당 부 판 원 이

주 훌 청 촉 소 목

혹 보 장 을 키 훌 이 ھ 거 나 진 훌 청 나 판 이 거 두  
어 기 르 기 를 브 즈 런 이 못 ھ 야 렘 탐 훌 새 에 현  
발 ھ 거 든 진 훌 청 으로 셔 초 거 ھ 야 논 죄 ھ 올

져

일 은 비 는 아 희 와 브 린 아 희 납 을 거 시 업 스 류  
는 진 훌 청 전 록 대로 ھ 야 죠 훌 대로 혜 아 려 지  
어 주 고 젖 어 미 도 혹 납 을 거 시 업 기 든 보 는 대  
로 일 체로 지 어 주 게 ھ 고 병 든 류 는 진 훌 청 으  
로 셔 혜 민 셔에 분 부 ھ 야 ھ 여 금 보 아 구 료 ھ  
울 셔

일은 외방은 각각 그 면니임이 보는 대로 본관  
에 보호, 거든 본관이 그 허실을 슬퍼비는 아희  
는다만 셜진호는 고을 뿐 거두어 기르고 봉린  
아희는 셜진호 고아니 기를의 논말고 통동옹  
야 거히호, 게호, 며죽먹이고 젓먹이 는절호와  
거두어 기르는 법의 는절마치 셜목대로  
시향호, 게호, 고곡식단은 양진곡으로 회감호  
게호, 고장과 머우단은 본관으로 담당호, 고미  
삭금음에 인구수와 꾸물수를 감영에 보호, 거  
든 감영으로 쇠고을 수를 조령호, 야후록호, 야  
조 흘頓총 소목

九

장문호, 게호, 고도성 칙단은 진흘정으로 올려  
보내여 뻐빙고호, 게호, 되각읍 슈령이 혹 소목  
을 어찌여 거히호를 잘 못호, 면경청법네대로 감  
시 가장 문호, 야논죄호, 게호, 고어소의 렴탐호  
세에 일례로 적발호, 야종등호, 야감처호, 올져  
일은 다호, 지못호 죄건은 조초마련호, 올져